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비판적 접근

Athletes' perception of the abolition of the university sports team and the reduction of support: A Critical approach

강영구(대구대학교 겸임교수) · 김용규*(대구대학교 전임교수)

Yeong Gu Kang · Yong Kyu Kim* *Dept. of Physic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사례분석을 통해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대학 엘리트스포츠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목적표집을 통해 대학운동부의 폐지와 지원축소를 경험한 8명의 선수를 연구참여자의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문헌분석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였고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려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를 경험함으로써 인해 선수들은 운동부 폐지에 대한 불안감과 지원 축소 확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대학운동부 선수들은 지원축소로 인해 열악한 훈련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부상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이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셋째, 지방 대학교의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경기실적을 강요받고 있는 구조 속에서 선수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thletes' perceptions of the abolition and reduction of support for the university sports team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eded for the revitalization of university sports. Data was collected for this study from the 8 participants by purposive sampling. they had experienced the abolition and reduction of support of the University sports team.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depth interview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and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was transcribed, and we trie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data by repeatedly reading the transcribed materia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the abolition of the university sports team and the reduction of support caused athletes to experience anxiety about the abolition of the Athletic Department and the difficulty of expanding the reduction of support. Second, university sports team athletes were exposed to poor training conditions due to reduced support, and support for injuries was difficult, which made them contemplating their own career worried. Third, the support of local universities was gradually shrinking, but in a structure that was being forced to perform in the game, the players were feeling injustice and there was a negative perception of this.

Key words : university sports team, abolition, reduction of support, perception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kim9886@daegu.ac.kr

I. 서론

대학운동부는 학교체육의 최상단에 위치하며 아마추어와 프로·실업 스포츠와의 경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 스포츠 영역에서 대학스포츠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하며(연기영, 2010; 이상철, 1999; 차재혁, 이정민, 장경로, 2015) 한국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점은 대학운동부의 존재 가치적 당위성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행된 교육부(2014)의 대학 ‘반값 등록금’ 제도 시행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조개혁은 대학운영 측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대학교 구조조정에 의해 부실 대학교의 폐지 및 정원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정책적 변화는 대학운동부에 대한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재정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의 1순위로 대학운동부를 지목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출전비와 경비, 등록금 등의 많은 비용 지출로 보고 있다(고아현, 조재현, 2016, 5월 9일; 유필립, 2014, 7월 22일).

보도자료(김세훈, 2019, 11월 17일; 이강영, 2017, 11월 7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39곳 대학에서 95개 종목의 운동부가 해체되었으며, 경기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0개의 운동부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문제 현상은 ‘대학스포츠 죽이기’ 식의 정책적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촉진시키는 발단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스포츠혁신위원회 및 스포츠정책 연구자들은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4)은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지자체 연계를 통한 지원확대와 기존 엘리트중심의 선수육성시스템에서 학업병행 선수육성시스템을 통한 시스템구조 개선 및 정책적 제도 개선을 우선에 두고 있었다. 이용식(2009)은 학교체육의 진흥과 관련된 부처기관 간의 협력 모형을 분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협력 모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용식과 오연풍(2021)은 국공립·사립 4년제·전문대학교의 대학운동부 운영 및 관리규정을 조사해 대학운동부의 운영에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차재혁과 이정민, 장경로(2015)의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와는 다르게 비시장 재화와 관련된 대학운동부의 가치를 조건부가치 평가법을 통해 산출하여 대학운동부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의 연구들(전용구, 1997; 조광민, 2006; 박혜경, 2015; 이용식, 2015)에서도 정책적, 운영적 측면에서 대학스포츠 및 운동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대학운동부의 폐지와 지원축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 및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스포츠의 정책적 논의에서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업병행에 대한 주제로 대학운동부 주제의 큰 영역에서 선수의 세부영역으로 연구의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교육환경에서 박탈당한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초

점을 두고 있다(김동기, 2018; 김동현, 2011; 남광우, 조옥상, 2015; 전지형, 김학준, 2021; 정순복, 2017). 이는 선수학생으로서의 교육적 차원과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선수 개인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정책적 자료의 비교분석과 현황분석에서 선수 개인의 교육적 차원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정부 지자체의 시행제도에 따른 정책적, 운영적 문제의 개선방안이나 학업병행으로 인한 선수들의 인식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학운동부의 폐지나 지원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학생입과 동시에 선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대학운동부의 폐지 및 지원축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학운동부 폐지와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운동부 선수들의 현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운동부의 폐지와 지원축소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동 여건의 변화와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과 시합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선수들의 현실과 심리를 깊이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대학운동부의 폐지 및 지원축소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면서 묵묵히 운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선수들의 특수한 상황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가를 비판적 접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부 선수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에 대한 인식의 사례분석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가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가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에 대한 사례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을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운동종목 특기생으로서 교내 타 종목 운동부가 폐지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는 지원축소를 경험하고 있는 운동부 선수들을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

구참여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 등이 유추될 가능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비밀유지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참여자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연구 진행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학년	종목	선수경력	경험내용	
					지원축소	폐지
참여자 A	남	4	검도	7년	단체복 장비 의약품	타종목 폐지 간접경험
참여자 B	남	3	검도	10년	단체복 장비 의약품	
참여자 C	남	4	펜싱	10년	단체복 장비 의약품	
참여자 D	여	4	펜싱	11년	단체복 장비 의약품	
참여자 E	남	3	씨름	11년	단체복 의약품	
참여자 F	남	4	씨름	12년	단체복 의약품	
참여자 G	남	4	축구	10년	단체복 유니폼 등록금 식비 기숙사 의약품	
참여자 H	남	3	축구	9년	단체복 유니폼 등록금 식비 기숙사 의약품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를 경험한 선수들의 인식 사례를 분석하고자 실제 직간접적으로 폐지 및 지원축소 되고 있는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일정은 2022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참여자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심층면담 진행을 위해 학교운동부 폐지와 지원축소와 관련된 보도자료와 선행연구(김종민, 2021a; 김종민, 2021b; 김민희, 이병호, 이병재, 2021, 10월 5일; 전상완, 2014; 한진욱, 2019)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대학스포츠의 활성화 방안과 문제의식 그리고 선수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2인이 함께 심층면담에 필요한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심층면담 질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심층면담 전부터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라포형성(rapport building)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훈련이 끝난 뒤, 개인시간을 이용해 미리 마련해 둔 숙소 근처 조용한 장소에서 준비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심층면담 녹음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심층면담은 면담자 1인과 종목별 2인으로 진행하였고 면담시간은 약 1시간 10분~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빠짐없이 전사하였고, 추가적인 질문은 참여자 특성상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하여 추가 면담을 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대학운동부의 폐지와 지원축소가 선수들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인식으로 작용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녹음된 모든 자료는 텍스트로 전사하여 문맥과 감정표현, 철자 등과 같은 오류들을 확인

및 교정하였다. 그리고 전사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도하는 바와 주제를 알아내고자 하였으며 영역의 범주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일치된 단어를 코드화하여 범주를 분절화하고 세부영역을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전사된 자료를 참여자와 공유하며 의미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의 경험 배경과 직접적 경험과정 그리고 선수들의 인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4.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료를 통한 결과 도출 과정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학 전공 교수 2인과 박사 1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스포츠지원에 대한 환경적 상황과 선수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전문가, 연구참여자 간의 삼각검증법을 사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및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원 간의 상호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만장일치된 내용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결과로 도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 경험

1) 타 종목 폐지에 대한 불안감

연구참여자들은 1학년 재학시절 일반 기숙사에서 타 운동부들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래서 타 운동부와의 교류를 하며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 동료의 운동부 폐지 소식을 접하게 되며 참여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조정부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니까 저희도 선생님이 말씀해주셔서 알게 됐고 그러니 너희들도 잘해야 안 없어질 수가 있다...심리적 압박감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연구참여자 A).

조정은 실업팀 형들이랑 같이 시합을 해서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종목부터 없애는 그런 느낌?...저희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받는 것 같긴 해요(연구참여자 E).

조정부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폐지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축구라는 종목만 따지면 원래 인기종목인데 저희들이 계속 성적을 못 내고 하면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는 게 아닐까? 아예 축구부가 교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연구참여자 G).

위의 사례에서는 운동부 폐지의 배경에 대해 경기실적 부진을

원인으로 두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운동부 폐지가 의미하는 것은 경기실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불안감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2) 운동부 지원축소의 확대

참여자들은 특기자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여 등록금 지원과 각종 장비 및 경비 등이 지급되었다. 소위 말하는 ‘특혜’를 받고 입학하게 된다. 이들은 1학년 재학 중에는 많은 특혜를 받으며 어느 운동부 선수와 다름없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지만 2학년이 되는 시기부터 지원은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저희 1학년 때까지는 죽도집 맞춰주고 했는데 저희 2학년 때는 저희 밑에 신입생 들어왔을 때 죽도집이나 호구 같은 거 맞춰주는 게 없어지고 재학생들도 호완 같은 손에 끼는 장비 같은 것들도 나왔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연구참여자 A).

저희 2학년 때부터 각자 운동부끼리 개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서 ‘지원이 축소됐구나’ 생각했습니다(연구참여자 B).

1학년 때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단체복이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끊겼죠(연구참여자 C).

신입생들 들어오면 잘 왔다고 장비랑 엄청 저희는 도복이랑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2학년 때는 아예 그런 게 없어지고 각자 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연구참여자 D).

일단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용품들이 제일. 운동복. 단체로 트레이닝복을 다 입는데 2학년 때부터 아예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비 말고 낼 게 없었는데 2학년이 되니까 점점 이제 내야 되는 게 많아지고 왜 내야 되는 거냐고 하니깐 이제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연구참여자 E).

들어오자마자 느꼈어요. 초중고 때보다 더 지원을 못 받았어요. 어디 대회를 가면 나온단가. 식비나 용품 통틀어서 진짜 초등 학교 때보다 덜 나오더라고요(연구참여자 F).

참여자들은 기존 지원해주던 장비와 단체복 등이 2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축소되고 있었으며 대다수는 경기지원비도 축소되고 있었으며 등록금 지원도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저희가 대회를 저희 돈 주고 나가는 대회가 있고 각각 사비로 나가는 대회가 요즘 많아진 것 같습니다...원래 사비로 나가는 대회가 아닌데 이번 대회는 사비로 간다고(연구참여자 A).

제가 사비로 나가는 대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두세 개까지 생겼다는 것은 확실히 지원이 줄었다고 생각이 돼요. 원래 사비로 나가는 대회가 아닌데(연구참여자 B).

장학금은 지금이랑 1학년 때랑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받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못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연구참여자 C).

위의 사례에서 대학운동부 지원축소는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원축소 원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선수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지원축소가 확대됨에 따라 당혹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2.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에 따른 선수 생활

1) 열악한 훈련환경

참여자들은 운동부 지원축소가 확대되면서 훈련 시에 필요한 장비를 사비로 충당해야만 했다.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종목 선수들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학운동부의 지원축소가 열악한 훈련환경을 조성하는 악순환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때릴 때 원래 딱딱 세게 치는데 탁탁 약하게 치고. 그게 잘못 습관이 되면 이제 세게 못 치고 살살 치게 되니까. 완벽한 기술을 못 치겠다고 해야 할까(연구참여자 A).

지원이 아예 안 나오고 저희가 각자 사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뜰이나 검도라는 종목이 저렴한 운동이 아닌데 비용적으로 솔직히 부담도 많이 되고 저희는 죽도가 자주 부러집니다...장비 부분에서 딱 필요한데 당장 못쓰니까 지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저장해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야 하니까.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아예 훈련에 집중을 못합니다(연구참여자 B).

그냥 이제 찢리면 아니까. 서로 인정하는.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비싼데 연습 때는 이제 되는 것(새 재킷)을 입고 하면 좀 많이 아까워 가지고 고장난 것을 많이 입고 하고 흰 불이 들어와도 서로 그냥 인정하는?(연구참여자 C).

장비 풀세트로 사면 백만원 넘고...칼 같은 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부러지면 또 저희가 사비로 들여서(연구참여자 D).

위의 사례에서처럼 장비의 훼손은 선수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기술훈련에 집중하지 못한 채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G와 H는 선수들에게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열악한 훈련환경 속에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2학년 때 쓰던 공을 아직까지 쓰고 있긴 하거든요. 보면 공이 동그란 게 아니고 살짝 세모 모양이 돼서 잔디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공이 동그랗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튀고 (연구참여자 G).

(격양된 어조)겨울에도 반 팔을. 겨울에도 반 팔 한 벌밖에 안 줘요. 애초에 겨울부터. 추우면은 안에 이너웨어 입고 하라고(연구 참여자 H).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지원축소로 인해 장비 구입이 재정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온전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실한 훈련환경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부상에 대한 노출

선수에게 부상은 선수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참여자 B는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테이핑이나 응급처치 용품에 대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훈련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저희는 맨발 운동이기 때문에 차가운 마루바닥에 발을 비벼 보면 발이 터져서 찢어지게 됩니다. 반창고나 뭐 이제 테이핑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발 아파서 운동에 집중이 안 되고 아파서(연구참여자 B).

신발이 해졌는데 부모님한테 말하기 죄송해서 그냥 계속 쓰다가 발목이 삐거나 부상이...(연구참여자 C).

있는 것은 그냥 파스, 감기약...운동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냥 학교에 들어와서 혼자 운동하고. 그래도 운동은 되겠지라는 생각 하면서 참고 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저희는 축구보험 자체가 안 돼서 대회 뛰다가 다쳤는데도 보험이 안 되서 그날 제 보험으로(연구참여자 H).

선수들에게 부상은 선수에게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선수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에서는 의료용품을 비롯해 인력, 행정적 지원 등이 축소됨에 따라 선수들은 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3) 진로 고민

학생선수들이 진로를 변경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부상, 사회적관계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 ‘연구참여자 A, C, G, H’의 사례에서는 운동부 폐지와 지원축소가 선수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C, G, H’에게 지원축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선수들의 부모에게 가중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선수의 이상적 목표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의 벽에서 무능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2~3학년 때 그런 지원이 끊기고 시합을 나가는데 성적이 잘 안 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하나? 이런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은 나가서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용돈인양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운동을 계속 해야 하나. 나도 남들처럼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게 낫지 않나(연구참여자 C).

지원이 안 되면 동기부여가 된다고보다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굳이 여기서 좀 더 해서 축구선수로 마흔 살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부모님이)말은 안 하셔도 옆에서 보이잖아요. 아.. 이것을 계속 해야 하나? 그냥 취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연구참여자 H).

‘연구참여자 A’의 사례내용은 타 운동부 폐지에 동료선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나타나면서 동료선수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 심리적 동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저희 동기 중에 조정부에 승수(가명)라는 친구가 조정부 없어지고 선후배들도 없어지고 자기 동기들도 중간에 다 나가버리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 먹고 살 일 찾겠다고 나가는 걸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A).

3. 대학운동부 선수의 폐지 및 지원축소 인식

1) 폐지와 지원축소 경험을 통한 인식: 골치덩이 운동부

‘연구참여자 C, D, E’는 대학관계자들이 대학운동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운동부의 폭력사건과 선수 특혜, 입시비리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 없는 선수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운동부의 부정적 인식이 피해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 특혜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일반 학생들은 왜 우리도 돈 내고 학교 다니는데 운동부는 왜 장학금 특혜를 받는가(연구참여자 C).

특기생의 특혜. 예전에 그런 논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점점 특혜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D).

학교예산이 줄면 운동부에서부터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학교예산이 쓸 그제 적어지면 일단 운동부 지원부터 줄이고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은 적이(연구참여자 E).

특히 ‘연구참여자 C’는 대학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반 학

생에 비해 운동부가 행정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운동부는 약간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에 쓸 돈도 많겠지만 저희한테도 따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고 저희가 시합을 나가면 공문처리 같은 것도 직접 학교에서 해줘야 되고 하나 학교 입장에서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줄이고 폐지까지 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연구참여자 C).

2) 지방대 운동부 혜택의 의미

지방권의 대학에 선수들이 진학하는 이유는 명문 팀이 있기도 하지만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등록금 지원, 식비, 훈련비, 장비 지원 등 이러한 혜택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물질적 지원이다. 그래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지원을 하게 되며, 그 팀은 결국 우수한 선수들이 모인 명문팀이 된다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설명이다.

저는 학교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 잘 하는 학생들도 지방대로 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야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고...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연구참여자 C).

이 지원 때문에 오는 잘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연구참여자 D).

지방대를 오는 엄청 큰 메리트가 학교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대학교를 들어 온 이유도 학비도 아예 안 내고 들어가는 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절반이라고 얘길 들어서 왔는데(연구참여자 G).

‘연구참여자 C, D, G’의 사례에서는 지방권 대학운동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치(merit)적 측면에서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 등의 물질적 지원 혜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외적 환경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지원은 단순히 훈련환경을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수로서 존중받고 있는 느낌과 이를 통해 자신감을 높여주는 핵심적 요인임을 ‘연구참여자 A, B, D’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원이)저한테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으로도(연구참여자 A).

(지원받는 것은)자신감도 있고, 사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연구참여자 B).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나 이 만큼 혜택받고, 대우받는 다’ 이러면서 자신감도 생겨요(연구참여자 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부의 지원축소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지원축소로 인한 악순환적 구조에 대해 지방권 대학운동부의 비전(vision)이 밝지 않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계속 그렇게 지원이 줄게 되면 잘하는 학생들이 안 오게 되고 그러면 성적을 못 내게 되고 점점 축소가 되다 보면 폐지까지 갈 수 있겠구나(연구참여자 C).

1순위가 아닌 2순위? 3순위로 밀리면서 점점 성적을 못 내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성적도 안 나게 되고 그럼 또 지원이 축소될 것 아니에요...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굳이 여기를 와야 되나’ (연구참여자 D).

(개인비용이)들어가는 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럴 거면 굳이 다른 애들이 지방대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방대는 안 오게 되고 그냥 알아서 인원이 없어지니까 아예 축구부가 해체될 수도 있고(연구참여자 G).

3) 운동부 지원축소 경험 인식의 현재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2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운동부의 지원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C와 H’는 지원축소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운동부의 소속감과 내적 동기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점점 축소되니까. 저희가 굳이 00대라는 이름을 걸고 시합을 뛰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연구참여자 C).

적당히 안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지원이)오면 우리가 좀 더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지?(연구참여자 H).

‘연구참여자 B와 G’는 지원이 축소되고 경기실적은 강요당하는 환경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지만 받아들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었다.

축소나 지원축소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상승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끼리 이제 4학년에서 다섯 명이니까 ‘똥똥 뭉쳐서 열심히 해보자! 아파도 끝까지 해보자! 이제 시합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면서 올리려고는 하는데 이제 힘든 상황이 더 많으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고, 그래도 저희가 또 이제 끌어올려서 하나씩 성적도 나오고 해서 잘 버티면서 하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아쉽고 속상하긴 해요...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사육당하는 느낌. 지원은 없는데 성적만 바라니까, ‘명예만 가져 와라’ 이런 식이니까(연구참여자 B).

운동선수들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의 사비를 모아서까지 시설이나 용품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G).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점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경기실적을 내기 위해 ‘헝그리 정신’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원축소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운동부 폐지와 지원축소를 경험한 선수의 특수한 사례를 통해 현재 사회적 흐름이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대학운동부 선수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대학운동부 폐지 및 지원축소에 대한 선수들의 경험 사례를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운동하던 타 운동부의 갑작스런 폐지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폐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운동부의 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지원받아 오던 단체복, 장비, 출전비, 등록금은 점차 지원이 끊기게 되었고 선수들은 경제적인 부담감과 훈련환경이나 선수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상완(2014)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지방대학 운동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결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선수의 중도탈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외적인 환경, 즉 선수가 온전히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선수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필요한 요인으로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수들에게 중요한 지원 선호도와 같은 선수 수요조사를 통해 선수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하여 운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 대학스포츠 관련 부처기관과 대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학운동부 지원축소가 가중됨에 따라 선수들은 고가의 장비와 용품 등을 사비로 구입해야 했고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훼손될까 하는 걱정에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선수는 부상의 여부에 따라 선수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의료지원의 축소로 선수들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선수 생활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는 학생 선수의 경우 사회,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면서 사회의 제 3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해주는 효과와 개인의 정서를 높여줌으로써 목표달성을 돕는 기능을 한다(강나경, 변해심, 2011; 류진숙,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타 운동부 폐지나 직접적으로 경

험하고 있는 지원축소는 선수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해하고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때 선수들은 중도포기와 같은 탈스포츠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선수로의 이탈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마리, 2014; Coakley, 1992). 이는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추구하는 학생선수로의 전인적인 스포츠인재 양성 정책과는 거리가 있으며(김종민, 2021a; 한진옥, 2019), 개인의 내적 변화에 의해서 계획된 선수의 재사회 과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후속되는 연구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타 운동부 폐지는 선수생활을 하며 느껴왔던 주변의 시선과 운동부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과거 학생선발, 학사 관리제도, 학업 성취도 및 스카우트 등이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원(정재용, 2015)이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대학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이는 선수들이 지원받는 장학금이나 등록금 면제 등까지 대학운동부 선수만의 특권의식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선수들이 인식하는 대학교 운동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으며 이에 대한 사례는 학교 운동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선수들은 풍부한 인적 인프라와 시설 및 각종 지원이 많은 수도권의 체육전문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극히 소수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선택으로 등록금과 장학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소재 대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운동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선수들은 지방 대학 운동부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고 대학운동부의 경쟁력도 낮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권 대학운동부의 지원축소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대학 운영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는 부정적 순환구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대학운동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운영 예산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대학교비로 운영(정재용, 2015;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 한진옥, 2019)되는 실정이며, 대학교조개혁신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처럼 운동부 지원을 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이러한 위협적 환경 속에서도 경기실적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선수 경기실적의 압박감 조성과 대학 소속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했고 스포츠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승리지상주의적 환경을 조성해 우리가 타파하고자 했던 엘리트 체육 지상주의를 더욱 강조하게 되는 모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위의 사례를 통해 대학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적 과제의 도전적 시도는 앞으로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 등을 통해 대학 스포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한 대학에 특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대학 운동부 선수들의 인식을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이 연구의 사례를 통해 후속 되어지는 연구에서도 다양한 사례와 양질의 자료가 대학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학 스포츠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전체가 즐기는 스포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도전적인 과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나경, 변해심(2011).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바우처 참가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인과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 881-898
- 고아현, 조재현(2016, 5월 9일). ‘찬밥신세’ 대학 스포츠, 사라진 열기는 어디로? 동대신문, <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62>.
-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자료집**.
- 김동기(2018). 대학 운동부 특기자 학생들의 일상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359-369.
- 김동현(2011). 무엇이 그들의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나?: 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문제점 및 대안. **체육과학연구**, 22(3), 2155-2171.
- 김민희, 이병호, 이원재(2021, 10월 5일). 대학 스포츠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다. 서울스포츠, <https://blog.naver.com/seoulsportal/222527054014>.
- 김세훈(2019, 11월 17일).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원 “왜 애꿎은 학교 운동부만 괴롭히나, 입시제도 개선이 먼저다” 스포츠경향,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911171402003&sec_id=530101.
- 김종민(2021a). 대학스포츠의 오늘을 향해 온 발자취, 내일을 향한 발걸음. **스포츠 현안과 진단**, 55, 1-8.
- 김종민(2021b). 대학스포츠의 오늘을 향해 온 발자취, 내일을 향한 발걸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칼럼**,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96482>. 2022. 9. 3. 검색.
- 남광우, 조옥상(2015).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좌절과 성공. **코칭능력개발지**, 17(4), 95-107.
- 류진숙(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박혜경(2015).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7(1), 83-112.
- 연기영(2010).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기구 설립에 관한 제 규정 제정방안. **스포츠와 법**, 13(2), 159-188.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필립(2014, 7월 22일). [포럼현장Q] 대학스포츠의 위기① 왜 대학운동부는 생존을 위협받나? 스포츠Q, <https://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0>.
- 이강영(2017, 11월 7일). [그들이 맘편히 운동할 곳은 없다] 대학스포츠가 맞닥뜨린 차가운 현실. 채널 PNU,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723>.
- 이대형(2011).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1-17.
- 이상철(1999). 뉴 밀레니엄과 체육 스포츠의 역할/21세기 한국 대학 엘리트 스포츠의 뉴 패러다임. **한국체육학회지**, 75, 19-27.
- 이용식(2009).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체육과학연구**, 20(1), 103-113.
- 이용식(2015).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3), 1-14.
- 이용식, 오연풍(2021). 대학운동부 운영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9(3), 21-35.
- 이유진, 황선환(2020). 저소득층 학생선수의 운동지속의사 결정 요인. **여가학연구**, 18(4), 53-69.
- 전상완(2014). 지방대학 운동선수들의 현실과 중도탈락에 대한 지각적 요인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3(3), 73-92.
- 전용구(1997). 학교 운동부 운영의 개선 방안.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지**, 2(2), 147-158.
- 전지형, 김학준(2021). 대학운동부학생들의 학업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웰빙의 관계 분석. **관광레저연구**, 33(8), 25-41.
- 정순복(2017). 대학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한국체육과학회지**, 26(6), 165-177.
- 정재용(2015). 대학 스포츠 산업화, 시스템 개혁이 해법. **스포츠산업이슈페이퍼**, 4, 1-16.
- 조광민(2006). 한국과 미국의 대학운동부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1(1), 223-236.
- 차재혁, 이정민, 정경로(2015).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한 한국 대학 운동부의 존재 가치 추정.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0(6), 67-80.
- 최마리(2014). 학생선수의 스포츠 탈퇴 예측을 위한 동기적 구조 탐색. **체육과학연구**, 25(4), 880-889.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1). 2021 연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자료집.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4). 대학스포츠 발전방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 보고서.
- 한진욱(2019). 한국 대학스포츠 현황 및 발전 방향, **스포츠산업이슈페이퍼**, 52, 1-13.
- Coakley, J. (1992). Burnout among adolescent athlete; A personal failure or social problem. *Sociology of sport Journal*, 9, 95-106.